

일부 직장근로자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인지도 및 실천도에 관한 연구

정정옥[†] · 배수명 · 송귀숙
해전대학 치위생과

Research into Some Company Workers' Awareness of the Hygiene of the Mouth and their Practice of It

Jung-Ock Jung[†], Soo-Myung Bae and Kwui-Sook So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Hye Jeon College, Hong Sung 350-702, Korea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into company worker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ir awareness of the hygiene of the mouth and practice of it, in order to prepare schemes to improve the hygiene of their mouth.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listed in the following: First, the workers have a high level of awareness of the effect of tooth-brushing to prevent periodontal diseases but a low degree of awareness of its effect to prevent decayed teeth and of the necessity of mouth hygienic supplies. Second, they have a high level of awareness of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scaling, but most of them do not have their teeth scaled periodically. To repeat, they have a high level of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dental examination, but not many of them put such awareness of theirs into practice. Third, married workers have a higher level of awareness of the hygiene of their mouth than unmarried ones do. The higher concern they have about the hygiene of their mouth, the more awareness they have of the hygiene of their mouth. Fourth, the higher monthly average income they have, the more frequently they put into practice their awareness of the hygiene of their mouth. And the poorer hygiene of their mouth they have, the more strongly they put into practice their awareness of the hygiene of their mouth.

Key words The hygiene of the mouth, Awareness of the hygiene of the mouth, Practice of the hygiene of the mouth

서 론

공중구강건강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직적 공동노력으로 구강건강을 증진 유지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실천연령계층에 따라서 구강건강을 영유아구강건강, 아동구강건강, 성인구강건강 및 노인구강건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실천하는 장소에 따라서 구강건강을 가정구강건강, 학교구강건강, 직장구강건강 및 지역사회 구강건강으로 분류할 수 있다¹⁾.

이러한 구강건강의 분류에서 성인의 구강건강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이들 성인의 대부분은 직장이나 일터에서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직장 내에서의 구강건강관리는 성인구강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근로자는 산업구강건강의 핵심대상이자 성인구강건강의 주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구강건강증진은 성

인구강건강과 산업구강건강 영역의 공통적인 목표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수립, 개선되어야 하고 사업장 구강건강증진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2,3)}.

Ide 등⁴⁾은 근로자의 구강건강은 사업장의 집단구강건강 관리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Schou⁵⁾는 사업장이 성인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교육을 할 수 있는 가장 접근이 쉽고 효율적인 장소라고 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구강건강은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보장에서 기본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구강병을 예방하고, 발생된 구강병을 조기발견, 조기 치료하여 구강병의 진행을 차단하면, 진료비의 낭비를 막을 수 있고 구강건강을 효과적으로 유지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직장구강건강교육과 직장구강건강사업이 필요하다⁶⁾고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조건이나 삶의 질이 많은 부분에서 예전에 비해서 향상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의 발전에 비해서 실제로 국

[†]Corresponding author
Tel: 011-9446-7997
Fax: 041-630-5176
E-mail: dentalmien@hanmail.net

민의 구강건강의 정도와 그에 따른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및 행태에 있어서는 여전히 예전과 비교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근거가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국가보건정책 부분에 있어서 구강건강 분야의 중요성이 실제로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형국에 있다 하겠다. 강화되어야 할 학생들에 대한 구강검진이 오히려 퇴보하였으며⁷⁾, 직장근로자에 대한 구강검진의 경우도 구강검진수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한때는 구강검진조차 폐지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⁸⁾. 이러한 여건 속에서 특히 국가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의 구강건강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며, 이들 근로자들은 생활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되므로 직장에서의 구강건강행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구강건강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라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구강건강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로자의 구강건강과 관련된 연구경향은 구강건강인식 및 행동에 대한 연구로, 사업장 근로자에 관한 연구⁹⁻¹²⁾, 가 있었고, 구강건강실태에 관한 연구¹³⁻¹⁵⁾, 가 있었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강건강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우선 근로자의 구강건강에 관한 인지도와 실천도를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근로자의 구강건강에 관한 인지도와 실천도를 파악하여 구강건강증진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며 직장 근로자 스스로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국민구강건강 향상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서울 시내 소재한 H그룹의 사무직 근로자 220명을 대상으로 2007년 12월 17일부터 2008년 1월 20일까지 약 5주에 걸쳐 편의표본추출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220명중 불충분한 응답자 15명을 제외한 205명을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문헌고찰^{8, 10-11, 16)}을 통하여 선정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7문항, 구강건강인지도에 관한 15문항, 구강건강실천도에 관한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도구의 응답범위는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tem	Category	Frequency (N)	Percent (%)
Gender	Male	122	59.5
	Female	83	40.5
Age	20-29	55	26.8
	30-39	127	62.0
	40-49	19	9.3
	50 or more	4	2.0
Education	High school	33	16.1
	College	130	63.4
	Graduate school at least	42	20.5
Marriage	Unmarried	81	39.5
	Married	124	60.5
Monthly average income	99 ten thousand won or less	4	2.0
	100-199 ten thousand won	74	36.1
	200-299 ten thousand won	86	42.0
	300-399 ten thousand won	24	11.7
	400 ten thousand won or more	17	8.3
Interest in the hygiene of the mouth	Very interested	7	3.4
	Interested	96	46.8
	Moderate	87	42.4
	Little interested	12	5.9
	Not interested	3	1.5
Hygienic condition of the mouth	Very hygienic	3	1.5
	Hygienic	43	21.0
	Moderate	72	35.1
	Little hygienic	82	40.0
	Not hygienic	5	2.4

(1점)의 리커트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구강건강 인지도와 실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구강건강인지도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값 0.82이었고, 구강건강실천도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값 0.81이었다.

3. 연구분석

조사된 설문지는 SPSS 12.0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도와 실천도에 대한 차이검증은 t-test 및 분산분석(ANOVA)을 시행한 후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결과 처리에 대한 유의수준은 0.05에서 실시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성별분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205명 중 남자가 59.5%, 여자 40.5%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30~39세가 6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20~29세가 26.8%, 40~49세가 9.3%

순이었다. 학력은 대졸이 63.4%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 이상이 20.5%, 고졸이 16.1% 순이었다. 결혼여부에서는 미혼이 39.5%, 기혼이 60.5%로 나타났다. 한 달 평균 수입에서는 200~299만원이 42.0%로 가장 많았고, 100~199만원이 36.1%, 300~399만원이 11.7% 순이었다. 조사대상자 중 구강건강 관심에 대해 '관심 있음'이 46.8%, '보통'이 42.4%로 나타났고 자신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건강 하지 않음'이 40.0%, '보통'이 35.1%로 나타났다.

2. 구강건강인지도

본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인지도는 다음과 같다(Table 2).

대상자의 구강건강인지도 문항별 점수를 보면 높은 인식점수를 보이는 문항으로는 '담배와 술은 구강건강에 해롭다'(4.27), '구강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구강검진이 필요하다'(4.15), '올바른 잇솔질 방법은 잇몸병을 예방할 수 있다'(4.12), '잇솔질 할 때 혀도 닦아야 한다'(4.12)이었다.

한편 낮은 인식점수를 보이는 문항으로는 '충치는 잘못된 잇솔질 습관 때문에 생긴다'(3.57), '불소를 함유한 식수나 치약은 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3.66), '잇솔질 외에

Table 2. Awareness of the hygiene of the mouth

Question	Mean
1. Smoking and/or drinking are harmful to the hygiene of the mouth.	4.27
2. Periodical dental examination is necessary for the hygiene of the mouth.	4.15
3. Correct tooth-brushing methods can prevent gum diseases.	4.12
4. The tongue need be cleaned as well when teeth are brushed.	4.12
5. Teeth need be brushed before bedtime.	4.10
6. Teeth need be brushed for three minutes.	4.06
7. The methods of tooth-brushing are more important than the kinds of toothpaste or toothbrush.	4.00
8. Training is necessary for improving the hygiene of the mouth.	4.00
9. Scaling (removing tartar) need be periodically conducted.	3.97
10. Teeth need be brushed within three minutes after eating meals.	3.93
11. Teeth are worn away due to wrong tooth-brushing practices.	3.89
12. Scaling is needed for preventing tooth diseases.	3.85
13. In addition to tooth-brushing, mouth hygienic supplies (dental floss, etc.) are required.	3.78
14. Potable water or toothpaste containing fluorine contributes to the prevention of decayed teeth.	3.66
15. Teeth are decayed because of wrong tooth-brushing practices.	3.57
Total mean	3.96

Table 3. Practice of the hygiene of the mouth

Question	Mean
1. I brush my teeth after eating meals.	4.27
2. I clean my tongue while brushing my teeth.	4.18
3. I brush my teeth more than three times a day.	4.05
4. I brush my teeth before going to bed.	4.05
5. I brush my teeth for more than three minutes.	3.68
6. During tooth-brushing, I turn round my toothbrush to clean teeth and gums.	3.57
7. I brush my teeth after eating between meals.	3.51
8. When I cannot brush my teeth, I use gargling water to clean my mouth.	3.34
9. After a dental examination, I have dental treatments if needed.	3.32
10. I use toothpaste containing fluorine..	3.29
11. I attend training for the hygiene of the mouth if opportunities are given to me.	3.16
12. In addition to tooth brushes, I use mouth hygienic supplies (dental floss, etc.).	2.86
13. I evade foods harmful to teeth.	2.63
14. I periodically have my teeth scaled (tartar removed).	2.58
15. I have periodical dental examinations.	2.54
Total mean	3.40

도 구강 위생용품(치실 등)이 필요하다'(3.78), '잇몸병 예방을 위해 스크레이핑을 해야 한다'(3.85)로 나타났다.

3. 구강건강실천도

본 연구대상자의 구강건강실천도는 다음과 같다(Table 3).

대상자의 구강건강실천도 문항별 점수를 보면 높은 인식점수를 보이는 문항으로는 '식사 후 잇솔질을 하고 있다'(4.27), '잇솔질 할 때 혀도 닦고 있다'(4.18), '잇솔질은 하루 3회 이상 하고 있다'(4.05), '자기 전에 잇솔질을 하고 있다'(4.05)로 나타났다.

한편 낮은 실천점수를 보이는 문항으로는 '정기적으로 구강검진을 받고 있다'(2.54), '스크레이핑(치석제거)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2.58), '치아에 해로운 음식은 피하고 있다'(2.63), '칫솔 외에도 구강 위생용품(치실 등)을 사용하고 있다'(2.86)로 나타났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인지도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인지도는 다음과 같다(Table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인지도는 결혼여부와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혼여부에서는 기혼(4.01)이 미혼(3.89)에 비해 구강건강인지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

에서는 '매우 관심 있음'(4.08), '관심 있음'(4.22), '관심 없음'(4.06), '매우 관심 없음'(3.20)으로 나타나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구강건강인지도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실천도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실천도는 다음과 같다(Table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실천도는 한 달 평균수입과 구강건강상태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달 평균 수입에서는 99만원 이하(3.02), 100-199만원(3.25), 200-299만원(3.50), 300-399만원(3.15), 400만원 이상(3.46)로 나타나 한 달 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구강건강실천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신의 구강건강상태에서는 '매우 건강'(3.18), '건강'(3.28), '건강하지 않음'(3.47), '매우 건강하지 않음'(3.57)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구강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구강건강실천도가 높게 나타났다.

고 찰

사업장은 성인대상 보건교육을 할 수 있는 가장 접근이 쉽고 효율적인 장소이며,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한된 공간과 시간을 통하여 비교적 함축적이면서도 체계적인

Table 4. Awareness of the hygiene of the mouth by general characteristic

Item	Category	N	M	SD	t or F	p
Gender	Male	122	3.99	0.38	1.304 [†]	0.194
	Female	83	3.92	0.42		
Age	20-29	55	3.94	0.40	0.405	0.749
	30-39	127	3.95	0.40		
	40-49	19	4.05	0.38		
	50 or more	4	4.00	0.39		
Education	High school	33	4.05	0.47	0.952	0.388
	College	130	3.94	0.40		
	Graduate school at least	42	3.94	0.29		
Marriage	Unmarried	81	3.89	0.36	-2.162 [†]	0.032*
	Married	124	4.01	0.41		
Monthly average income	99 ten thousand or less	4	3.95	0.53	0.421	0.794
	100-199 ten thousand won	74	3.93	0.34		
	200-299 ten thousand won	86	3.97	0.44		
	300-399 ten thousand won	24	4.04	0.46		
	400 ten thousand won or more	17	3.93	0.23		
Interest in the hygiene of the mouth	Very interested	7	4.08	0.24 ^{ab}	9.542	0.001*
	Interested	96	4.22	0.39 ^{ab}		
	Moderate	87	3.83	0.35 ^a		
	Little interested	12	4.06	0.39 ^{ab}		
	Not interested	3	3.20	0.00 ^b		
Hygienic condition of the mouth	Very hygienic	3	4.17	0.26	0.421	0.782
	Hygienic	43	3.91	0.37		
	Moderate	72	3.98	0.41		
	Little hygienic	82	3.96	0.39		
	Not hygienic	5	3.97	0.51		

[†]p-values are calculated by t-test.

[†]p-values are calculated by ANOVA.

^a, ^b, ^{ab}: Scheffe의 사후검정 - 같은 문자가 있는 것은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p > 0.05)

Table 5. Practice of the hygiene of the mouth by general characteristic

Item	Category	N	M	SD	t or F	p
Gender	Male	122	3.43	0.49	1.037 [†]	0.301
	Female	83	3.35	0.47		
Age	20-29	55	3.35	0.36	2.614	0.052
	30-39	127	3.46	0.54		
	40-49	19	3.19	0.34		
	50 or more	4	3.08	0.28		
Education	High school	33	3.28	0.68	2.625	0.075
	College	130	3.38	0.40		
	Graduate school at least	42	3.53	0.52		
Marriage	Unmarried	81	3.30	0.40	-2.571 [†]	0.112
	Married	124	3.46	0.52		
Monthly average income	99 ten thousand won or less	4	3.02	0.33 ^b	5.697	0.001*
	100-199 ten thousand won	74	3.25	0.44 ^a		
	200-299 ten thousand won	86	3.50	0.49 ^{ab}		
	300-399 ten thousand won	24	3.15	0.52 ^a		
	400 ten thousand won or more	17	3.46	0.33 ^{ab}		
Interest in the hygiene of the mouth	Very interested	7	3.56	0.26	0.921	0.054
	Interested	96	3.40	0.54		
	Moderate	87	3.41	0.44		
	Little interested	12	3.18	0.37		
	Not interested	3	3.60	0.13		
Hygienic condition of the mouth	Very hygienic	3	3.18	0.30 ^a	5.763	0.011*
	Hygienic	43	3.28	0.60 ^b		
	Moderate	72	3.32	0.36 ^b		
	Little hygienic	82	3.47	0.45 ^{ab}		
	Not hygienic	5	3.57	0.57 ^{ab}		

[‡]p-values are calculated by t-test.

[†]p-values are calculated by ANOVA.

^a, ^b, ^{ab} : Scheffe의 사후검정 - 같은 문자가 있는 것은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p > 0.05)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통로 및 그 증폭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근로자의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는 구강병으로 인한 근무시간 중 이탈을 감소시켜,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발전에도 유익하다¹⁶⁾.

1995년 5월 1일부터 ‘직장피보험자 일반건강진단사업’ 중 구강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는 정부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직업성 구강병 뿐만 아니라 일반 구강병도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으나, 구강검진으로 구강병을 조기발견하여 조기치료로 유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강건강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⁷⁾.

본 연구는 근로자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직장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과 그에 따른 구강건강인지도 및 실천도에 관한 연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논의 하고자 한다.

대상자의 구강건강인지도 문항별 점수를 보면 Table 2에 구강건강인지도는 높은 인지도 점수를 보이는 문항으로는 ‘담배와 술은 구강건강에 해롭다’(4.27), ‘구강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구강검진이 필요하다’(4.15), ‘올바른 잇솔질 방법은 잇몸병을 예방할 수 있다’(4.12), ‘잇솔질 할 때 혀도 닦아야 한다’(4.12)로 나타났다. 치주질환 예방에 관한 인지도에서는 고 등¹⁰⁾의 연구에서 잇솔질의 치주질환 예방효과 인지자율 72.5%, 치면세마치주질환 예방효과 인지자율 57.4% 결과와 상동한 올바른 잇솔질 방법에 의한 치주질환 예방에 관한 인지도

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직장 근로자들의 올바른 잇솔질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올바른 잇솔질 방법을 교육하여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낮은 인지도 점수를 보이는 문항으로는 충치는 ‘잘못된 잇솔질 습관 때문에 생긴다’(3.57), ‘불소를 함유한 식수나 치약은 충치예방에 도움이 된다’(3.66), ‘잇솔질 외에도 구강 위생용품(치실 등)이 필요하다’(3.78), ‘잇몸병 예방을 위해 스크핑을 해야 한다’(3.85)로 나타났다.

치아우식증에 관한 인지도에서는 김¹⁰⁾은 치아우식증의 가장 큰 원인을 구강상태의 불결, 즉 치아를 닦지 않아가 52.1%라고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치아우식증의 원인을 다양하게 보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구강위생용품에 대한 인지도도 낮게 나타났는데 아직까지 많은 직장 근로자들이 칫솔에만 의존하여 구강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직장근로자들의 구강건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구강 위생용품의 사용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구강건강실천도 문항별 점수는 Table 3과 같다. 구강건강실천도는 먼저 구강건강실천이 높은 문항을 순위별로 보면 ‘식사 후 잇솔질을 하고 있다’(4.27), ‘잇솔질 할 때 혀도 닦고 있다’(4.18), ‘잇솔질은 하루 3회 이상 하고 있다’(4.05), ‘자기 전에 잇솔질을 하고 있다’(4.05)로

나타났다.

잇솔질은 구강 건강 실천도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그 시기로 이 등¹²⁾, 김¹⁶⁾, 윤 등¹⁷⁾의 연구결과와 같이 식사 후와 취침 전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구강건강실천도에 낮은 문항을 살펴보면 '정기적으로 구강검진을 받고 있다'(2.54), '스켈링(치석제거)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2.58), '치아에 해로운 음식은 피하고 있다'(2.63), '잇솔질 외에도 구강 위생용품(치실 등)을 사용하고 있다'(2.86)로 나타났다.

김¹⁶⁾의 연구에 의하면 스켈링 경험자는 37.2%였고, 윤 등¹⁷⁾의 연구에서 보면 스켈링 경험자는 21.1%로 경험율이 낮았으나 구강위생상태가 양호한 군에서는 30.1%가 스켈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불량한 군에서의 92%가 스켈링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스켈링 경험과 구강위생상태와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켈링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통하여 동기를 유발시키야 한다고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인지도에 대한 차이검증은 결혼여부와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혼여부에서는 기혼이 미혼에 비해 구강건강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고,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구강건강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¹¹⁾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혼일수록 구강건강인식도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김¹⁸⁾의 연구에서는 학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본 연구대상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었고, 김¹⁸⁾의 연구대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포함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실천도는 한달 평균수입과 구강건강상태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 달 평균 수입에서는 김¹⁹⁾의 연구 보고와 마찬가지로 한 달 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구강건강실천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구강건강상태에서는 구강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구강건강실천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많은 직장 근로자들이 적극적인 실천으로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연구대상자들은 자신의 구강건강관리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구강건강관리에 필요한 행위도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므로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구강건강실천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구강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구강건강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표본선정에 있어 서울에 위치한 H그룹의 사무직 근

로자들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다른 전체적인 근로자들에게 적용하여 일반화하기에 어렵고, 본 연구의 도구로 사용한 설문지는 연구자가 여러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작성한 것이므로 표준화되지 않은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본 연구대상에서 성별과 연령, 학력 및 결혼여부 등의 표본수가 고르게 분포되지 않아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추가적 연구의 방향에 대해서 제언하고자 한다. 근로자들이 일하는 직장은 다양한 직종들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여러 분야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직종간의 비교, 지역간의 비교 뿐 아니라 근로자들간의 비교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구강건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장근로자들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강건강인식, 태도 및 행동과 구강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직장근로자들의 구강건강증진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직장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인지도와 실천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산업구강보건정책 수립과 직장 구강보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강건강인지도에서는 잇솔질에 의한 치주질환 예방효과에 대한 인지도는 높았지만, 충치예방효과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고, 구강위생용품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둘째, 구강건강 실천도에서는 스켈링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대부분 스켈링을 정기적으로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구강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구강검진이 필요하다고 높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천에서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인지를 보면, 결혼여부에서는 기혼이 미혼에 비해 구강건강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고,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에서는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구강건강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구강건강 실천도에서는 한 달 평균 수입이 높을수록 구강건강실천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신의 구강건강상태에서는 구강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구강건강실천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근로자들은 생활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되므로 직장에서의 구강건강행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구강건강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라 여겨진다. 또한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운용한다면 구강건강이 크게 증진되리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1. Kim JB , Choi YJ: Public Dental Hygiene. Gomunsa, Seoul, pp.9-10, 1991.
2. Park GS: A Study on the Level of Dental Hygiene and the Behavior for Workers at Workplaces in Chungnam Province.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2003.
3. Song JR: An Investigational Study on the Behaviors of Dental Health for Workers in Iksan-si and the Requirement for Dental Health Education.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2007.
4. Ide R, Mizoue T, Tsukiyama, Ikeda M, Yoshimura T: Evaluation of oral health promotion in the workplace: the effects on dental care costs and frequency of dental visits. *Comm Dent Oral Epidemiol* 29(3): 213-219, 2001.
5. Schou L: Oral health promotion at worksites. *Int Dent J* 39(2): 122-128, 1989.
6. The Korean industrial Dental Health Association: Report on Public Hearing for Improvement of Medical Examination System for General Sick and Wounded Workers. *Industrial Dental Health Scientific Journal* 12(1): 43-49, 2003.
7. Jeong SS, Yi HS: Actual Status on the Consciousness of Parents of Students of School Dental Examination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ealth* 30(2): 117-129, 2006.
8. Kang MS: Influence of Consciousness, Attitude, Behavior and Knowledge of Dental Health on Dental Plaque-induced Disease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ealth* 18(1): 144-168, 1994.
9. Kang SI: An Investigational Study on Consciousness of Dental Health for Production Workers in Busan Metropolitan City. *Inje Medicine* 13(4): 545-551, 1992.
10. Goh SY, Moon HS, Kim JB, Baek DI: An Investigational Study on Workers' Consciousness and Behavior of Dental Health.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ealth* 23(2): 105-114, 1999.
11. Kim IJ: Investigation into Actual Status of Dental Health for Worker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yungsan University, 1992.
12. Yi TH, Nah SJ, Kim JB: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of Dental Health for Workers at Workplac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1997.
13. Park BG: Investigational Report on Dental Health by Job Classification of Skilled Workers.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Kyunghee University, 1982.
14. Yun DH: Investigational Study on the Actual Status of Dental Health for Bank Employees.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1985.
15. Kim HC: Investigational Study on the Actual Status of Dental Health for Korean People. Ph. D. Dissertation of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2.
16. Kim JS: Consciousness of Dental Health Management.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 1993.
17. Yun HS, Yi HG, Yi SG: Correlation between Freshmen's Consciousness of Dental Health and Dental Hygien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Agricultural Medicine & Community Health* 21(1): 99-104, 1996.
18. Kim BJ: Consciousness of Dental Health for Workers of Large Enterprises.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4.
19. Kim YN: Factors Related with Consciousness of Dental Health for Korean Adults. Master's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2004.

(Received February 27, 2008; Accepted March 17, 2008)

